

캐나다 퀘벡주 대입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최영준¹, 박성만^{2*}, 임희주²

¹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²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Investigation on the Main Features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in the Province of Quebec, Canada

Young-Joon Choi¹, Seong-Man Park^{2*}, Hee-Joo Im²

¹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²Professors, College of Liberal Arts, Dankook University

요약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선발방법의 한 형태로 안정된 시행을 보이고 있으나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영역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시행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중인 대학입시제도가 우리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가를 비롯해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대학입시제도가 국민들의 주요 화두에 오르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대학 간의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질적 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의 교육체제와 대학입시제도의 특징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 퀘벡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퀘벡주의 전반적인 교육제도 및 목적, 주요 대학의 실제적인 대학입시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제어 : 한국의 대학입시제도, 캐나다 대학입시제도, 캐나다 퀘벡주 교육시스템, 퀘벡주의 교육체제, 고등교육

Abstract Although the comprehensive school report system which was renamed from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has been stably implemented in Korea, the fairness of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concerning the evaluation on the extra-curricular domain has still been a controversial issue. Thus, it has been the main topic in the educational policy to consider the desirable college admission system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of current changes in the admiss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has not been the problem for students and people concerned in Canada. The completion of higher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admission itself in Canada due to the standard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in qual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ducation and college admission system in Canada in general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province of Quebec.

Key Words : College admission system in Korea, College admission system in Canada, Education system in Canada, Quebec, Education system in Quebec, Higher education

1. 서론

교육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중학교에는 자유학

기제를 확대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한다고 발표하였다. 대학에는 혁신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

*Corresponding Author : Seong-Man Park(seongmanpark@dankook.ac.kr)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학생에게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나갈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대입제도는 지난 10년간 모집시기별로 수시와 정시 모집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대학입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각 학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서류, 면접, 논술 등)과 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등)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 및 학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형들이 생성과 변형, 소멸을 반복하면서 대입전형이 복잡해졌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대학입시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1]. 입학사정관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입제도로 안착기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정성 논란은 진행 중이며 교육부는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2018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2].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중등학교와 대학교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방 이후 각 학교단위별 학생선발이 학업성적위주로 이루어지고[3] 학벌중심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매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적성보다는 성적을, 개인의 역량보다는 출신학교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학생선발과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학생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생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중등 교육과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대학입시제도가 국민들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캐나다의 학교 교육은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직업훈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심각해진 학력저하, 성인들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부족과 읽기 능력 부족, 프랑스어 수준의 질적 저하, 변화

된 사회와 직업 및 경제 구조에 대한 대처 부족 등을 개혁하기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개혁을 시작하였다[4]. 캐나다는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입시와 달리 연방차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미국의 SAT와 같은 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각 주와 대학마다 내신성적을 바탕으로 한 교유한 입학제도과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이러한 개혁을 통해 상하 관계로 인식되어온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동반 관계로 수정하고,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의 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장시켜 학교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6]. 또한 양적 성장에 집중하던 교육의 목표가 질적 변화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7].

퀘벡주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은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에 있다.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목에 대해 요구되어지는 지식 성취도를 달성하고 일정한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한 이후에도 사회에 진출하여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7]. 박중규(2017)는 캐나다와 퀘벡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일정 주기(2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평가, 교과목의 경계를 없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및 발전을 바라보는 평가, 목적이 아닌 학습의 일부로서의 평가 등 평가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학습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평가라고 하였다[6].

이러한 캐나다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진입을 원하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게 대학입학을 원하는 캐나다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로 캐나다 종합대학 진학률은 3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는 역량 강화를 중시한 중등교육의 결과로 대학 진학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캐나다에서는 중등교육 이후 바로 대학입학을 선택하기 보다는 바로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의 근로활동 후 변화하는 직업 및 취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의 일환으로 대학교육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캐나다 대학들은 각 분야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실용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9]. 또한 캐나

다에서는 대학입학보다는 대학이란 교육기관에서 고등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졸업했느냐가 보다 중요하게 평가된다. 캐나다의 대학들은 교육에 있어 전국적인 질적 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대학입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중등교육의 결과가 대학입시에 반영되고 고등교육의 이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교육환경 개선과 고등학교의 학습결과를 반영한 대입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와 한국 교육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한국의 학업 성취율이 캐나다에 비해 높다는 것은 아니다. OECD내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캐나다는 중등교육학위 취득 평균 81%(다른 회원국 79%), 5세에서 29세까지의 OECD 평균 취학률 78%(다른 회원국 62.8%)를 기록하고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교육제도와 대학입시제도의 특징을 퀘벡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와 비교를 통해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캐나다의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퀘벡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입시처럼 통일된 제도가 없는 캐나다의 교육제도 특성상 퀘벡주 자체의 대입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퀘벡주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칼리지와 대학 한곳을 선정하여 입시제도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교육제도 및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3. 퀘벡주의 교육제도와 대학입시제도

캐나다의 교육은 각 주의 교육부에서 각 주의 상황에 맞게 교육체계, 교과과정, 학기 및 취학연령 등을 결정한다. 각 주정부는 고등교육 이전까지의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중등교육 이후의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당한다[10]. 대부분의 주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며 퀘벡주의 공립학교는 세젱(CEGEP)까지 무상교육이다. CEGEP은 Collège d'enseignement général et professionnel의 약자로 대학준비를 위한 일반과정과 취업을 위한 직업준비과정이 있다[5].

3.1 캐나다 퀘벡주의 교육제도

캐나다 내에서도 퀘벡주는 교육에 있어 타주와 비교하여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캐나다 전체 학생 대상 학습평가에서 일정한 수준의 읽기와 쓰기 비율이 연방의 경우 읽기 71.5%, 쓰기 85.4%, 퀘벡주는 읽기 71.9%와 쓰기 87.6%로 연방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4].

퀘벡주의 교육과정은 크게 주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공립과 사립으로, 언어에 따라 불어와 영어 교육기관으로 구성되고, 교육기간에 따라 초등(elementary education), 중등(Secondary education), 칼리지(College education), 대학(University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취학 전 과정(Pre-school education)은 선택사항이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취학 전 과정에 등록한다. 퀘벡주 거주 학생들의 학비는 공립학교 체계일 경우 초등교육에서 칼리지과정까지 모두 주정부에서 부담한다[11].

퀘벡주의 초등과정은 캐나다 내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6년 과정이다[12]. 중등과정(Secondary School)은 타주의 6년 체제와 달리 5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5년 과정 중 처음 2년 동안은 일반교육 과목을 배우며 나머지 3년 동안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중등학교 5년 중 3년차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별도로 선택하여 졸업 시 직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직업훈련 증서를 취득할 수도 있다. 5년의 중등과정을 이수하면 칼리지의 세젱과정에 진학할 자격을 갖게 되는 중등학교 졸업증 SSD(Secondary School Diploma)를 취득한다[13]. 중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일부과목에서는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퀘벡주정부 교육부의 정부시험도 통과해야 한다[14].

퀘벡주는 대학(University) 입학 전 고등교육과정인 칼리지의 세젱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중등과 대학의 중간과정(Secondary 6 or Grade 12 & First year of university)이다. 칼리지 과정인 세젱은 학생들의 목표에 따라 대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2년 과정과 기술교육을 목표로 하는 3년 과정의 기술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15]. 캐나다 퀘벡 주 교육과정에서 '교과 영역'은 다음 Table 1과 같다 [15].

세젱을 수료하게 되면 학사학위를 받는 3년 과정의 대학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세젱과정을 다른 주의 과정과 비교하면 고교 3학년과정 1년과 대학 학부과정 1년

을 합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퀘벡주 대학과정은 3년으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퀘벡주의 교육제도를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Fig. 1과 같다[13].

Table 1. Education Subject in Quebec[16]

Subject Area	Subjects
Language	-English Language Arts -Francis, Language Seconde: Programme de base -Francis, Language Seconde: Immersion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s	-Geography -History and Citizenship Education
Art Education	-Drama -Visual Arts -Dance -Music
Personal Development	-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Moral Education -Catholic Religious and Moral Instruction -Protestant Moral and Religious Education

Pre-school Education (Junior K 1year + Senior K 1year): 2years	
Elementary School: 6years	
Secondary School: 5years	
CEGEP Technical: 3years	CEGEP Technical: 2years
	University Bachelor's Degree: 3years
	Master's Degree: 2years

Fig. 1. Education System in Quebec[13]

3.2 캐나다 퀘벡주의 대학입시제도

캐나다는 한국의 대학입시처럼 통일된 대학입시제도 및 수학생력시험과 같은 시험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와 대학마다 다른 대학입시제도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10]. 대학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의 대학은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퀘벡주의 대학입시제도는 칼리지 과정인 켄잡과 대학과정인 University의 두 과정을 거친다. 이중 켄잡은 캐나다 퀘벡주에만 있는 과정으로 대학입학을 위한 과정(pre-university training)과 졸업 후 사회진출을 돕는 직업교육 과정(technical programs)을 합친 교육기관이다. 퀘벡주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Dawson College(다우슨 칼리지)와 캐나다 내에서 12년 연속 대학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McGill University(맥길대학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학교의 입학과정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17,18].

3.2.1 Dawson College

퀘벡주 Montreal(몬트리올)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다우슨 칼리지는 2년 과정의 대학예비 과정과 3년 과정의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선발 시 기타 다른 자격 및 활동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없이 내신 성적과 정부시험의 결과만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켄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과정 중에 쉽게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 학교 카운슬러와의 상담을 통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정별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연수는 길어지게 된다. 또한, 켄잡과정은 대학과정처럼 학과별, 전공별로 세분되어있지 않으며 크게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몇 가지의 세부전공으로 나누어진다. 다우슨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Fig. 2와 같다.

Disciplines	Programs
Science	Explorations Science / Developmental Science First Choice Science / Health Science Pure & Applied Science / Environmental Science
Social Science	General Social Science / Commerce Child Studies / Environmental Studies International Business / Law, Society & Justice North-South Studies / Psychology Travel and Tourism
Arts, Literature & Communication	Arts & Culture / Literature / Languages Cinema-Communications / Studio Arts Interactive Media Arts / Visual Arts / Liberal Arts

Fig. 2. Programs and Disciplines at Dawson College[17]

3.2.2 McGill University

퀘벡주 대학들은 4년 과정이 아닌 3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타주 졸업자나 국제학생들이 켄잡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4년 과정을 공부해야 한다. 켄잡을 마치고 대학(University)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DCS(Diploma of College Studies)가 필수이다. 일반적으로는 2년 과정의 대학준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지원하나 특별한 경우에 3년의 직업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입학도 켄잡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하에 입학이 허가된다[18].

맥길대학교 입학의 일반적인 특징은 학과목 성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와 관련된 고등학교 및 켄잡과정의 내신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퀘벡주에서 중등과정을 마치고 지원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타주 혹은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제학생의 경우에도 영어 성적보다는 내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4. 한국의 대학입시제도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선발방식이나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차이를 반영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선발 기준은 항상 학업성적이었다. 대학입학 적격자를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원칙을 유지하였다[3].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 대학입시제도와 학업성적 중심의 학생선발은 초·중등학교에는 대학입시를 위한 지나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가계에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2004년)을 발표하면서 대학입시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 개선안의 내용은 대학입학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이다.

이후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 1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으며 이듬해 2008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2007년의 지원대학 외에 신규대학 30개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19]. 2014년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7년에는 사업명칭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다[20].

대학입학전형은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지며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약 70%를 선발하고 정시모집을 통해 약 30%를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이며 정시모집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구술고사이다.

최근 3년간 대학입학전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모집이 안착단계에 있으며 전체 모집인원이 감소하고 수시모집 인원비율은 증가하고 정시모집 인원비율은 감소추세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2019학년도에는 전체모집인원의 65.9%를 선발하며 대학별 논술 전형 평균 모집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학년도에는 전체모집인원의 12.4%를 선발하고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년간 81개교로 변화가 없지만 모집인원은 소폭 증가하여 전체모집인원의 3.8%를 선발한다[21,22].

수시모집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선발은 지원학생의 개인별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별 논술 전형 실시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른기회전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정시모집은 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전형이 자리를 잡았으며 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교육부(2014, 2017)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 대학입시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캐나다 퀘벡주의 교육제도와 대학입시제도가 우리나라 대학입시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18].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17년 기준으로 68.9%이며 2010년 75.4%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최근 3년간 40%대 초반의 OECD 국가 평균 대학진학률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치이다[23].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면 캐나다의 고등학교 교육은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진출하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대학교육은 개인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원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15].

둘째, 캐나다의 교육은 스스로의 학업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다. 다른 학생과의 경쟁을 통해 순위가 정해지는 상대평가를 택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과 달리 캐나다는 절대평가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성실히 이수하고 각 교과목에서 필요로 하는 수업 및 교

과 활동을 통해 각자의 점수를 얻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본인의 학업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캐나다 학생들의 내신에 대한 관념은 자신의 성실함과 성취를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수험생과의 경쟁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학업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학업에 임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는 한국의 대학입시제도하의 학생들보다는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다[19]. 학생 스스로 학업 목표를 통해 일정수준의 학업성취를 달성하고 대학은 원하는 학업성취수준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캐나다의 절대평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캐나다는 원하는 공부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대학을 선택하는 교육체제이다. 캐나다의 고등교육은 크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전문성 함양에 목적을 둔 기관과 직업 및 실업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앞서 있다[24]. 따라서 대학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각종 직업전문교육 혹은 원하는 분야로의 사회진출 등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 다시 대학 공부를 시작하는 성인의 수도 많고 이런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캐나다 대학 입학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캐나다에서는 대학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야하는 의무 과정처럼 여겨지는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5]. 또한 한국과 달리 퀘벡주 교육 목적의 핵심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에 있다[4]. 이를 통해 퀘벡주에서는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통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언제든지 제공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대학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전형 중 만학도나 재직근로자를 위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하여 극히 일부의 지원자에 한 해 입학이 허용된다.

넷째, 캐나다의 퀘벡주는 중등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로의 진출과 대학교육을 통한 사회로의 진출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등교육을 이수

한 학생들의 학업 목표를 한국의 경우와 같이 대학입학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제과정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세제과정처럼 장기적인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이나 진로관련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퀘벡주 교육목표의 핵심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를 학습의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닌 평가를 학습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획일화된 평가, 단기간에 걸친 평가 보다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추적 보고하는 형태의 장기평가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5]. 입시 중심의 우리 교육에서는 장기보다는 단기, 다양성보다는 표준화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의 역량 강화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점검하고 채워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6. 결론

캐나다 중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진출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 것이다.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절대평가의 적용으로 인해 학생은 스스로 학업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평가는 추적 보고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학습 안에서 장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의 노력과 평가의 결과는 대학입시에 반영된다. 졸업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 원하는 공부를 위해 직업학교나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학입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퀘벡주는 다른 주와 달리 세제과정의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 진출과 대학교육을 통한 사회진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절대평가, 학생스스로 학업목표 설정, 학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평가의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세제과정을 통한 진로탐색,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학입시제도가 특징이다.

캐나다는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내신성적을 기반으로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한

다. 우리 사회와 같이 대학 서열이나 전공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기 보다는 중등학교까지의 학업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 모두가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학 입학 후 평균 졸업률 96%와 캐나다의 75%의 졸업률[25]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의 대학은 입학보다는 고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의 대학입시제도가 우리의 대학입시제도에 시사하는 바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절대평가제도 도입 고려, 성인학습자에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학입시제도, 다양한 방법의 진로탐색 기회 부여, 장기적 안목의 평가 방법 도입이다.

이를 통해 본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대입제도에서 고등학교는 입시경쟁보다는 학생 개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역량기반 교육을 통해 개별학습자의 학습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장기간의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에 걸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이나 재교육을 위해 입학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2014). *Report on the simplification of criteria for college admission selection and the development plan for college admission system(Draft)*.

[2] Ministry of Education: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8). *The beginning of education and culture innovations changing my life*.

[3] S. I. Kim. (2009). *Educational Sociology*. Kyoyuk Kwahaksa.

[4] D. R. Seo. (2012). Educational Reform in Quebec, Canada. *Asian Journal of Canadian Studies*, 18(1-2), 63-82.

[5] T. J. Shin. (2012). Education system and development task. In I. H. Chung & B. J. Kim et al. (Eds.). *Comparative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pp. 333-358). Kyoyuk Kwahaksa.

[6] J. K. Park. (2017). *A case of implement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Canada: Focusing on the province of Quebec(1-4)*. Education Policy Networ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Online). <http://edpolicy.v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68&pageIndex=1&pageCondition=10&nBoardArticleSeq=240504>

[7] K. H. So, S. E. Lee & J. Y. Park. (2007). Review on curriculum reform in the Canadian province of Quebec: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7(4), 105-128.

[8]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ancouver. (2011). *Education/Study abroad information*.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Vancouver(Online).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

[9] I. H. Chung & D. B. Ju. (2004). Educational system and the trend of educational reform in America and Canad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4(2), 197-218.

[10] Council of Minister of Education, Canada. (2018). *The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Education in Canada: An Overview*. Council of Minister of Education, Canada (Online). <http://www.cmec.ca/299/Education-in-Canada-An-Overview>

[11] Government of Quebec. (2017). *Information and service*. (Online). <http://www.gouv.qc.ca/EN/Le-Quebec/Pages/Education.aspx>

[12] Settle-in. (2015). *Primary School in Quebec: Schedule and Program*. (Online). <https://www.settle-in.com/topics/education/primary-school-in-quebec-schedule-and-program>

[13] Universityhub. (2014). *Understanding postsecondary education in Quebec*. (Online). <http://blog.campusrankings.com/postsecondary-education-in-quebec>

[14] Settle-in. (2015). *Secondary School in Quebec: Exams and Diplomas*. (Online). <https://www.settle-in.com/topics/education/secondary-school-in-quebec-exams-and-diplomas>

[15] Settle-in. (2015). *CEGEP in Quebec-The Ins and Outs*. (Online). <https://www.settle-in.com/topics/studying/cegep-in-quebec-the-ins-and-outs>

[16] J. Kim, C. Kang, K. So, M. Son, D. Jin & S. Lee.

- (2012). *Study on Direc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reflecting Practical Character Education*.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17] Dawson College. (2018). *Admissions: How to apply*. Dawson College(Online). <https://www.dawsoncollege.qc.ca>
- [18] McGill University. (2018). *Undergraduate Admissions*. McGill University(Online). <http://www.mcgill.ca>
- [19] M. S. Chung. (2012). *The way to reflect high school grades and implications i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of major countries: The U.S., England, Canada, Education Policy Networ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20] Ministry of Education. (2014). *Implementation plan for the support project for universities contributing to the normaliza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in 2014*.
- [21]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7). *Announcement of implementation plan for 2019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 [22]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7). *Major issues for 2019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 [23]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2017 Educational statistics analysis report*. Kindergarten-Elementary-Secondary educational statistics.
- [24] J. K. Lee. (2003). A case of college entrance guidance in Canada. *Higher Education*, 11(12), 14-20.
- [25] Concordia University. (2018). *Concordia graduation rate at national average*. (Online). <http://www.concordia.ca/cunews/main/stories/2014/01/08/concordia-graduationratesatnationalaverage.html>

최 영 준(Young-Joon Choi)

[정회원]



- 1990년 3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2019년 6월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 2019년 7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평생교육,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직업교육
· E-mail : d333300@dankook.ac.kr

박 성 만(Seong-Man Park)

[정회원]



- 2005년 2월: McGill University, Second Language Education (문학석사)
- 2010년 2월: McGill University, Second Language Education (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다중언어, 다문화
· E-Mail : seongmanpark@dankook.ac.kr

임 희 주(Hee-Joo Im)

[정회원]



- 200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영어교육학 석사)
- 2011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과(영어교육학 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조교수

· 관심분야 : 과업중심 커리큘럼개발,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 E-Mail : heejooim@dankook.ac.kr